

당신은 전설이었습니다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당신은 우리에게 전설이었습니다. 인품이나 재능이나 그 무엇 하나 따라가기 힘든 분이었으니, 그야말로 전설 속 인물로 여겨질 수밖에요. 특히 글씨씨는 천부적으로 재능을 타고나셨던 것 같습니다. 칼럼 하나 쓰기 위해 몇 날을 강강대야 하는 저로서는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맛깔스러운 글도 일품이었지만 당신의 속필(速筆) 또한 마치 전설처럼 후배들에게 전해져 옵니다. 마감에 대해서는 자동차 속에서도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든 원고지 위에 펜을 달라고 했는지요.

주업이었던 언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체육·정치 등 당신의 업적은 모든 분야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지방에서만 아니라 중앙무대에서 다방면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하셨지요. 바쁜 일정 때문에 서울-광주 간 비행기도 자주 이용하셨는데, 당신은 광주로 오는 비행기 속에서도 후다닥 글을 써내려가곤 했습니다. 비행시간이라 해 봐야 불과 몇십 분일 터인데 그 짧은 시간에 한 편의

글을 완성하시곤 했다니 경탄, 또 경탄할 따름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글 쓰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펜은 발동기를 단 듯 잠시도 쉬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마치 거미줄처럼 생각이 거침없이 흘러나와, 원고지에 글자로 새겨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평소 풍부한 지식과 함께 높은 식견이 없으셨어 어찌 그리 빠른 시간 안에 글을 마무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글은 제가 신문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지면을 통해 늘 보아 왔던 터였습니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는 제호를 달고 나오는 당신의 글에는 늘 인간적인 향기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즐겨 휘호로 쓰기도 했던 대도무문-큰 길에는 문이 없으니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큰 도리나 정도(正道)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생전에 대도무문이라는 제호를 자극히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거기에 아마도 ‘붓을 들어 종횡으로 거침없이 달린다’는 뜻도 담겨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언론계의 거두

제가 당신을 처음 뵈는 것은 20대 ‘병아리 기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철수를 향해 달리고 계실 때였으니 제가 당신과 함께 한 세월은 고작 10년도 못 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당신

의 글을 많이 봐서인지 처음 뵈 때부터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니다.

게다가 선배들은 당신이 따스한 인간미의 소유자라며 이런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지요. 공무국 직원들에게 종종 돼지고기와 막걸리 파티를 열어 주곤 했다고요. 당시만 해도 컴퓨터 시스템이 없었기에 신문사 공무국에서는 문선공(文選工)이나 식자공(植字工)들이 납 활자를 만져야 했습니다. 직원들의 납 증독을 염려했던 당신은 ‘납 증독에는 돼지고기가 좋다’면서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던 것이지요.

당신은 참으로 정력도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말을 마셔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밤마다 술다령을 거르지 않아도 ‘술 마시는 저녁, 일하는 아침’을 어진 적이 없었는지요. 수기동 뒷골목 선술집이나 기생집 등 가리지 않고 술집을 드나들며 술자리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번사 흥내도 잘 냈다니 참, 재주도 많으셨습니니다.

당신은 술도 잘했지만, 읊조렸다고 스스로 고백했던 전경자 화백과는 달리 노래 실력도 일품이었던 것이요. 수기동 뒷골목 선술집이나 기생집 등 가리지 않고 술집을 드나들며 술자리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번사 흥내도 잘 냈다니 참, 재주도 많으셨습니니다.

잠시 펜을 멈추고 많은 저명인사들이 당신의 삶을 기록한 책 ‘바삐 살다간 사람’을 펼쳐 봅니다. 당신은 1917년, 지금의 광주 금남로 3가에서 광주

지역 대농(大農)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30년 광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동경(東京) 센슈대학(修善大學) 전문부를 수료했으며, 1942년 일본 호지신문사(報知新聞社) 기자가 되었습니다. 1943년 고향으로 돌아와 ‘전남신보’ 사회부장으로 일하였으며 광복 후에는 주간이 되었고 1947년 ‘호남신문’ 편집국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1952년 ‘전남일보’(지금의 광주일보)를 창간하고 발행인 겸 주필·사장에 취임하여 1987년까지 호남을 대표하는 언론인으로 언론 창달에 지대한 공적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삶은 온전히 초창기 광주일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운 그 이름 남봉 김남중

1957년 전라남도 체육회장에 피선되어 전라남도 체육 중흥에 앞장섰고, 1960년 초대 참의원으로 낙후된 국내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1962년엔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1980년까지 18년 동안 상임부회장으로 한국신문협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수필가로도 활동했던 당신은 1969년 국제펜클럽 한국대표위원이 되었으며, 1970년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남지부장에 추대되어 1980년까지 10년 동안 열악한 전라남도 및 광주 지역 예술문화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971년 전일방송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취임하였고, 197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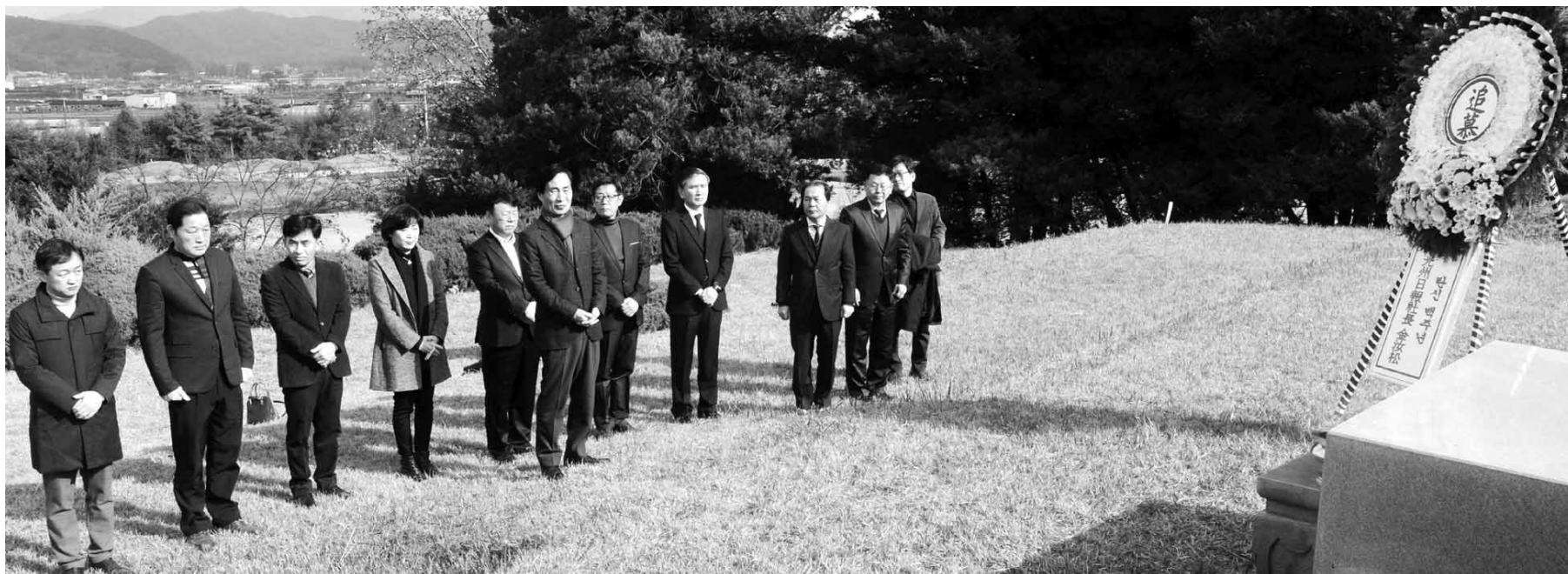
호남전기주식회사를 인수하여 1987년까지 회장을 지냈습니다.

당신이 1958년부터 1980년까지 ‘전남일보’(지금의 광주일보)에 쓴 칼럼 ‘대도무문’(大道無門)은 무려 2189편이나 됩니다. ‘사요나라의 나라’ ‘삼등열차’ ‘월평선’ ‘바람을 보는 사람들’ ‘여정천리’ ‘대도무문전집’ ‘바람과 구름과 함께 가는 여로’ ‘인생연극’ 등 주옥같은 글을 모은 책들은 제목만 대충 훑어보아도 감회가 깊습니다.

이제서야 밝히는 당신의 이름은 남봉(南鳳) 김남중(金南中, 1917~1987)입니다. 올해는 당신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요 타계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금, 당신이 걸어온 삶의 아주 작은 편린(片鱗)이나마 들여다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남봉’은 남쪽 하늘을 나는 봉황새입니다. 천덕길에 지쳐도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대나무 열매 아니면 먹지 아니한다는 전설의 새. 당신의 호 남봉(南鳳)에는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큰 꿈이 담겨 있음을 잘 압니다.

당신이 교회(1986년)를 맞았을 때 당신을 위해 서정주 시인이 지어 준 교회송(古稀頌)을 가만히 읽어 봅니다. “옛날에 좋은 하늘의 봉황새 하나/ 전라도 오동나무가 그리워/ 무등산 근방에 내렸었나니/ 봉 잡기를 좋아하는/ 전라도 사람들 사이에 놓여/ 눈 순탄한 웃음만으로/ 일흔 해를 넘겼다는 건/ 역사나 큰 봉황의 힘이라다”



남봉 김남중 회장 탄신 100주년을 맞아 김여송 사장을 비롯한 광주일보 간부들이 23일 오전 담양 창평컨트리클럽내 선영에서 추도식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故 김남중 광주일보 초대 회장 탄신 100주년·서거 30주년 추도식

광주일보 초대 회장을 역임한故 남봉(南鳳) 김남중 회장의 탄신 100주년 및 서거 30주년 추도식이 23일 오전 담양군 창평면 오강리 창평컨트리클럽내 선영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김여송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광주일보 간부들이 참석해 고인

의 언론 창달 정신을 기렸다. 광주일보는 남봉의 ‘언론 창달 정신’을 이어받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65년째 정론 직필을 펴고 있다. 김여송 사장은 추도사에서 “남봉은 언론의 불모지인 호남에 정론의 씨를 뿌린 언론 선각자라는 점에서 탄생 100주년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어 “광주일보는 남봉 김남중 회장의 지역 언론과 문화에 대한 애정을 주춧돌 삼아 1952년 창간 이후 호남 최고의 신문이란 위상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다”며 “남봉은 60여년전에 이미 호남예술제와 3·1절 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사업을 통해 호남의 우수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을 양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일보 임직원들은 이날 추도식에서 “100년 신문을 향해 정진하고, 호남 민심의 대변자로서 내실있고 정확한 보도에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정필수기자 buny@kwangju.co.kr

알립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광주일보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연말연시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성금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 2018년 1월 31일(수)까지
 ◇ 계좌번호 : 광주은행 053-107-999990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광역시지회(062-222-566)
 농협 617-01-162651
 예금주 : 전라남도공동모금회(061-902-6800)

◇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기부상담 전화 080-890-1212

한국신문협회 · 光州日報社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샵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한마음 공인중개사

- ▶ 신가동 4층상가건물 대지 240㎡ 보5천만원 월420만원포함, 매매가 9억5천만원
- ▶ 송정동 3층상가건물 대지 280㎡ 최고요지 보1억4천만원, 월710만원 포함 매매가 20억원
- ▶ 북구 삼각동 그린타운 아파트 112동 2층 109㎡ 금매 현재 시세 1억8천만원 사정상금매, 매매가 1억6천만원
- ▶ 금곡동 중상사근처 고급 전원주택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126㎡(주택정원 잔디밭, 밭, 주차장소제) 사정상금매, 매매가 7억원(조정가)
- ▶ 화순 도곡온천내 무인텔 대지3000㎡ 건물4층 3동, 객실 37개, 월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가), 용지28억원포함, 매매가 37억원
- ▶ 담양 월산면 모텔(무인텔, 요양병원 최적화) 대지4200㎡, 계획관리지역, 건물2동있음(현재 담양군 모텔허가 안나옴) 철거후 무인텔허가 가능 매매가 10억원(조건부 협상가)
- ▶ 광산구 송치동 180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억원
- ▶ 제주시 과수원 1840㎡(도로있음),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4억4천만원
- ▶ 신안군 비금도 염전 (태양광), 25,000㎡ 계획관리지역, 매매가 4억5600만원
- ▶ 장성군 남면 행정리 44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9300만원
- ▶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백양사와 월산면 사이) 생산관리, 2800㎡ 전망최고, 매매가 1억350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개림오거리

기독교대안학교 입학설명회

호남의 영재들 텍사스로 입성하다

기독교학생 3주 미주훈련
2018년 1월 21일~2월 10일
(비용 320만원)

일시 : 2017년 11월 25일(토) 11:30
문의 : (061)381-0000

TALK **광주국제기독교스쿨**
전남 담양군 무정면 종리도동길 42-34